SK하이닉스, 저탄소 경영지원 확대

2011년 CO_2 6700톤 저감 경제효과 30억원 … 협력기업 18개로 늘려

SK하이닉스는 5월15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산업환경지원본부의 지원으로 추진해온 <협력기업 저탄소경영체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>를 개최했다고 5월16일 발표했다.

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는 18개 협력기업에 대해 탄소파트너십사업 참여 인정패를 수여하고,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도 배출량 검증이 완료된 4개 협력기업에 대해 검증성명서를 전달했다.

또 참가했던 협력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협력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.

SK하이닉스는 2010년 6월부터 10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경영 노하우를 이전하고 협력기업의 탄소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<저탄소경영체제 구축사업>을 운영하고 있다.

2011년 6월부터는 총 18개 협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66건의 탄소경영전략 수립, 220건의 실행과제 도출, 86개의 에너지 개선 테마 도출, 59회의 교육 실시,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지원을 강화했다.

지원결과 지난 1년간 CO_2eq(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) 6700톤 저감 등 약 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다.

한편, SK하이닉스는 2010년 6월부터 경기도 주선으로 멘토가 돼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 협력기업에게 제공하는 <산업체 Stop CO_2 멘토링>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.
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16>